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채권혼합-재간접형 펀드]

(운용기간 : 2017년06월28일 ~ 2017년09월27일)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10층
(전화 02-6308-0500, <http://www.trustonasset.com>)

펀드 운용경과 및 운용계획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펀드가 2017년 3분기(2017.06.28. ~ 2017.09.27.)를 마감하며 고객 여러분께 분기 운용보고서를 드립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은 저희의 투자철학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7년 3분기는 글로벌 경기회복의 확산과 기업의 이익 성장으로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국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자산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백년대계50 자산배분 펀드는 국내외 자산에 대한 적절한 비중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보인 시기였습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앞으로도 더욱 투자원칙에 집중하여 장기적으로 고객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꾸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리며, 지난 3개월간의 운용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운용개요

선진국·신흥국 주식,
크레딧 채권 OW
미국·국내 채권 UW

지난 2017년 3분기(2017.06.28. ~ 2017.09.27.) 동안 트러스톤 백년대계50 자산배분 펀드의 수익률은 2.20%를 기록하였습니다. (운용펀드 기준)

동 기간 동안 KOSPI -0.67%, 선진국 지수(MSCI World Index) +4.27%, 신흥국 지수(MSCI Emerging Markets Index) +7.13%, 미국 채권(US Aggregate TR Index) +0.38%, 국내 채권(KBP종합채권지수) -0.37%, 달러 대비 금 시세는 +2.86%, 상품지수(S&P GSCI TR Index)는 +11.84% 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동 펀드는 경기 개선세가 확인되는 선진국 증시, 수출 중심의 신흥국 증시, 그리고 크레딧 채권을 높은 비중(Overweight)으로, 미국 채권과 국내 채권을 낮은 비중(Underweight)으로 조절하여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경기 확산 국면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2. 운용경과

[주식]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내 증시 상승세 둔화

7월 KOSPI 시장은 유가 반등과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 발언, 그리고 한국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2,453pt를 경신하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 갔으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과 선진 증시 조정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로 8월에 -1.64% 하락 마감했습니다. 9월 중 2,400pt를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발언과 북핵 리스크로 인해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회복이
유럽, 중국으로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가 빠르지 않아 경기 회복의 체감속도는 느린 상황이었지만 기업 실적으로 본 각국의 경기는 양호하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디스플레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럽중앙은행(ECB)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 계획을 선제적으로 예고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기 중 대북강경발언, 백인우월주의 지지 발언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탄핵 가능성과 연방 정부 폐쇄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부채 상한 한도 조정과 18년도 예산안 통과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나타났지만, 허리케인 피해 확대(이로 인해 부채한도 상향, 예산안 확정, 세계개편 등이 속도를 낼 전망)와 경기 펀더멘탈의 경고함이 이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상쇄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GDP 성장률이 지속 상향 중이며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미국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회복이 유럽, 중국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안정은
수출 중심의
신흥국에 긍정적**

미국의 원유 수출은 2017년에 79.6% 증가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하던 치킨게임이 미국 주도로 변화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되며 유가는 40달러 후반에서 50달러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 → 원자재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 상승 → 금리인상의 양상을 보이나 이번에는 달러 약세=원자재 강세 공식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가격 약세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수출하는 신흥국 경기에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신흥국 증시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선진국 증시가 정치/정책 리스크에 노출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으로의 자금유입이 발생하여 금 가격이 밴드 상단까지 상승했습니다. 분기 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재개되면서 금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분기 평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자산배분 비중 조절**

동 펀드는 정량적 모델과 정성적 회의를 통해 자산배분의 비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Risk Appetite Index(이하 RAI)를 통해 주간, 월간 단위로 정량적 국면을 파악하고 있으며 시그널에 따라 국지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익 성장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지나치게 급격히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는 차익실현을 통해 포트폴리오의 쏠림과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권]

**신흥국 채권으로
자금 유입**

분기 초, 저물가 지속과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잭슨홀 미팅 이후 미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선진국 통화정책 지연과 신흥국 통화강세 속에 물가 전망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완화 기조가 이어져 신흥국 채권으로의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국내채권 약세**

분기 중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기조 유지, 유럽중앙은행(ECB)의 테이퍼링 언급,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 부각,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출회,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현 기준금리가 낮다 및 한은 총재의 완화 정도 조정 가능 코멘트 등의 영향으로 금리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초장기물의 경우만 보험사의 꾸준한 매수가 지속된 가운데 기재부가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시험했습니다. 결국 국고 3년물은 전분기말 대비 18.7bp 상승한 1.887%로 마감하였고, 국고 3년/10년 스프레드는 전분기말 대비 2.8bp 축소된 48.4bp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듀레이션 축소로 대응**

통화정책 정상화에 선진국 금리는 상승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신흥국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펀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기채 비중을 늘려 듀레이션을 줄였으며, 국내 주식 비중 또한 낮췄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신흥국과 선진국의 비중 확대로 대응하였으며,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신흥국 채권의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3. 운용계획

[주식]

**국내 기업 이익
견조하나
위험 요인 공존
리스크 해소시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계획**

국내 시장의 경우 반도체 가격이 견조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호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민감주들의 실적이 상향된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견고해 지면서 위험 자산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인상, 테이퍼링, 규제 강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하다가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에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국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선진국 주식은 높은 이익 증가율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는 이미 반영되었으나 정치적 이벤트는 여전히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프라 투자 공약의 이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더불어 세계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율 하향과 소득세율 하향으로 미국 내수 경기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번 허리케인 하비는 역대 최고의 피해액을 보였던 2005년 카트리나 보다 피해액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되면서 동 분기 성장률은 저조하겠으나 2005년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다음 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신흥국 상승세
지속 전망**

중국은 당대회 일정을 앞당기면서 시진핑 2기 시작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하반기 중에 이로 인한 경제 정책 변화는 없겠으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의 상승감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기업 실적 개선 폭 대비 주가 상승률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를 여전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채권]

**국내경기 호조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국내 경제는 9월 수출이 전년동기비 35%로 역대 최고치 증가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도 전년동기비 2.1% 상승하며 3개월 연속 2%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성장 전망을 2.7→3.0% 상향 조정하기도 했지만, 9월 소비자동향지수(CSI) 약화 지속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약화 등 감정적 기대감은 아직 미진한 흐름이며, 가계부채 관련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와 북한 리스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미FTA 재협상 진행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권 금리는
상향된 박스권 흐름
이어갈 전망**

채권 금리는 4분기에는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 기존보다 상향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상승과 함께 국내 한은 총재의 매파적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현재 금리 수준은 이미 한차례의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외국인 매도세로 금리가 이미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급변동과 같은 추가적인 수급 불안요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기 초반 큰 폭의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분기 후반인 연말로 갈수록 금리 상단 밴드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12월 금리 인상
압력 증가**

미국 경제는 신규 고용이 감소 반전했지만 임금상승률이 크게 개선되고 공급관리자협회(ISM) 지표도 예상을 상회하는 등 금리 민감도가 높은 경기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12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9월 FOMC 결과 및 최근 연준위원들의 발언으로 볼 때,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시장 예상 수준의
점진적 양적완화 시사**

유로존은 구매관리자지수(PMI) 지표 개선이 이어진 가운데 유로화 강세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9월 유럽중앙은행(ECB) 의사록에서 향후 양적완화(QE) 축소가 최근의 경제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시사하면서 10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에서 시장 예상 수준의 점진적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채권운용은 전반적인 경기 확장 국면 속 국내외 정책당국의 매파적 스탠스를 감안하여 듀레이션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크레딧 채권은 변동성 확대 부담 요인이 상존하여 중립 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CIO 황성택
멀티에셋부문 CIO 이윤표
자산배분팀 상무 신홍섭
담당 매니저 신근수 拜上





목 차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5. 비용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8. 공지사항

<참고 - 펀드용어정리>

1. 펀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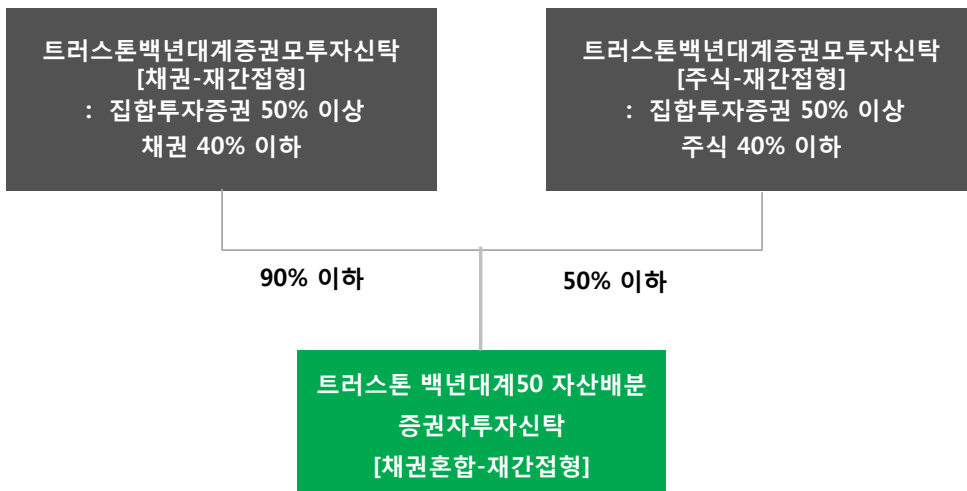
■ 기본정보

적용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투자위험등급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트러스트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4등급	BR242
A			BR243
C			BR245
Ce			BR246
Cp			BR250
Cp-E			BR251
Cp2			BR253
Cp2-E			BU130
W			BR248
펀드의 종류	재간접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최초설정일
운용기간	2017.06.28 ~ 2017.09.27	존속기간	별도의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트러스트자산운용(주)	펀드재산보관회사	기업은행
판매회사 ^{주)}	www.trustonasset.com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p>이 펀드는 90% 이하를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50% 이하를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p> <p>① 각 부문별 CIO, 리서치헤드, 펀드 매니저가 참석하는 Truston Global Macro Meeting을 통해 국가별, 자산군별 상대매력도 분석을 통한 펀드 운용을 위한 방향성을 결정합니다.</p> <p>② 트러스트자산운용의 시장전망이 반영된 자산배분모델과 HMC투자증권의 자산배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 시장국면에 적합한 자산군별 비중을 결정하여 최적 자산배분안을 도출합니다. 또한 Truston Risk Appetite Index를 자산배분모델에 적용하여 위험자산 비율을 조절합니다.</p> <p>③ 트러스트자산운용은 HMC투자증권과 파운트투자자문의 자문을 받아 해당 자산군 내, 시장 상황 및 상관관계 변화가 감안된 최적의 펀드를 선택합니다.</p> <p>④ 자산배분 비율을 점검하고 HMC투자증권과 파운트투자자문의 자문을 통해 리밸런싱을 정기, 수시로 실시합니다. 또한 대외변수가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을 조정합니다.</p>		

주)판매회사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구성



■ 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트러스트백년대계50자산배분 증권투자자산탁 [채권혼합-재간접형]	자산 총액 (A)	0	11,761	0.00
	부채 총액 (B)	0	0	0.00
	순자산총액 (C=A-B)	0	11,761	0.00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0	11,507	0.00
	기준가격 ^주 (E=C/D×1000)	0.00	1,022.02	2.20
종류(Class)별 기준가격 현황				
A	기준가격	0.00	1,019.90	1.99
C	기준가격	0.00	1,018.88	1.89
Ce	기준가격	0.00	1,019.85	1.99
CP	기준가격	0.00	1,019.64	1.96
W	기준가격	0.00	1,020.66	2.07
CP2	기준가격	0.00	1,019.77	1.98
CP-E	기준가격	0.00	1,020.21	2.02
CP2-E	기준가격	0.00	994.92	-0.51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 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수익률 현황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트러스트백년대계50자산배분 증권투자자산탁 [채권혼합-재간접형]	2.20	-	-	-
종류(Class)별 현황				
A	1.99	-	-	-
C	1.89	-	-	-
CP	1.96	-	-	-
CP2	1.98	-	-	-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BM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발견하거나 인덱스 산출기관에서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비교지수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수시공시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수익률은 과거의 운용실적으로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당 펀드는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종류별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0	0	0	0	0	0	0	0	0
당기	7	0	0	144	0	-10	0	0	0	2	-2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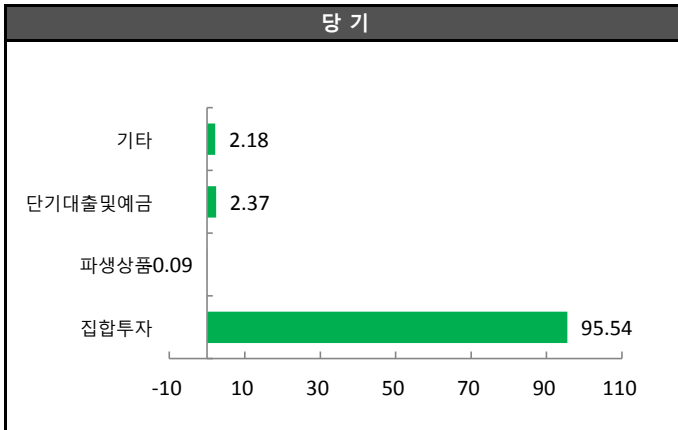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USD (1140.70)	0 (0.00)	0 (0.00)	0 (0.00)	2,368 (20.14)	0 (0.00)	-10 (-0.09)	0 (0.00)	0 (0.00)	0 (0.00)	96 (0.82)	0 (0.00)	2,454 (20.87)
KRW	0 (0.00)	0 (0.00)	0 (0.00)	8,868 (75.4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83 (1.55)	256 (2.18)	9,307 (79.13)

* () :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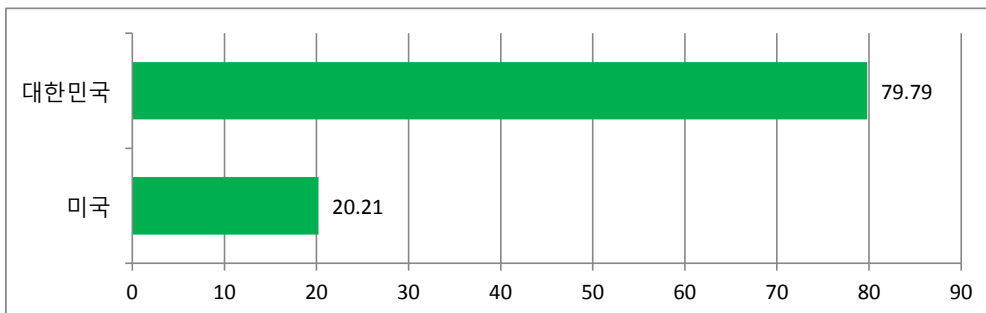


주) 위의 결과는 해당 자펀드의 실제 자산보유 내역을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을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안분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한 결과와 비교하여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투자비중 (발행 국가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명	비중
1	대한민국	79.79
2	미국	20.21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을 통해 환율 변동이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이하, "달러") 등 외국 통화 대비 원화 환산가치의 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모두투자신탁의 국가별 외국 통화 표시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환헤지 전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헤지가 불가능한 통화이거나 보유 비중이 낮은 통화 자산인 경우 환헤지 전략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외국 국가 통화 간의 환율변동위험에는 노출됩니다.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 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17.09.27) 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17.06.28 ~ 17.09.27)	환헤지로 인한 손익 (17.06.28 ~ 17.09.27)
80%이상	94.99%	-	-

주)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선도환

(단위 : 계약, 백만원)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고
선물환	신한은행	미국달러	매도	2017-11-17	491	491	-5	
선물환	신한은행	미국달러	매도	2017-11-17	431	431	-3	
선물환	신한은행	미국달러	매도	2017-11-17	1,388	1,388	-3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유진행피연단기채(자)[채권]C/F	8.12	6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틴디아퀀슈머1(주식)CI	4.49
2	집합투자증권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증권K-1(채권)C/W	7.39	7	집합투자증권	슈로더유로증권투자신탁A(주식)I	4.22
3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1호[주식]C-I	6.79	8	집합투자증권	유리글로벌밸류스[자]1(주식)-C1	3.95
4	집합투자증권	동양단기채권(채권)C-F	5.77	9	집합투자증권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주식]II	3.91
5	집합투자증권	한화단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채권)I	5.76	10	집합투자증권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자)H[주식]Cf	3.38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유진챔피언단기채(자)[채권]C/F	채권형	유진자산운용	937	955	대한민국	KRW	8.12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증권K-1(채권)C/W	채권형	교보약사자산운용	861	869	대한민국	KRW	7.39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1호(주식)C-I	주식형	미래에셋자산운용	626	799	대한민국	KRW	6.79
동양단기채권(채권)C-F	채권형	동양자산운용	668	679	대한민국	KRW	5.77
한화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I	채권형	한화자산운용	670	678	대한민국	KRW	5.76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1(주식)Ci	주식형	미래에셋자산운용	390	528	대한민국	KRW	4.49
슈로더유로증권자투자신탁A(주식)I	주식형	슈로더투신운용	486	496	대한민국	KRW	4.22
유리글로벌버려스[자]1(주식)-C1	주식형	유리자산운용	413	465	대한민국	KRW	3.95
트러스트칭기스칸증권(주식)II	주식형	트러스트자산운용	463	460	대한민국	KRW	3.91
삼성아세안플러스베트남(자)비(주식)Cf	주식형	삼성자산운용	333	397	대한민국	KRW	3.38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성명	직위	출생 년도	운용중인 다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신홍섭	상무	1974년	7	3,054	-	-	2109000900
신근수	사원	1986년	2	67	-	-	2117000096

주)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5. 비용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트러스트백년대계50 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2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2	0.03
		증권거래세	0	0.00	0	0.00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A	자산운용사	0	0.00	0	0.10	
	판매회사	0	0.00	0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1	0.2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2
	증권거래세	0	0.00	0	0.00	
C	자산운용사	0	0.00	0	0.10	
	판매회사	0	0.00	1	0.2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1	0.3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2
	증권거래세	0	0.00	0	0.00	
Ce	자산운용사	0	0.00	0	0.10	
	판매회사	0	0.00	0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2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2
	증권거래세	0	0.00	0	0.00	
CP	자산운용사	0	0.00	0	0.10	
	판매회사	0	0.00	0	0.13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23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2
	증권거래세	0	0.00	0	0.00	
W	자산운용사	0	0.00	0	0.09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9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3
	증권거래세	0	0.00	0	0.00	

구분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CP2	자산운용사	0	0.00	6	0.10	
	판매회사	0	0.00	7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13	0.22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2	0.03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2	0.03
	증권거래세	0	0.00	0	0.00	
CP-E	자산운용사	0	0.00	0	0.10	
	판매회사	0	0.00	0	0.06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16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2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2
	증권거래세	0	0.00	0	0.00	
CP2-E	자산운용사	0	0.00	0	0.01	
	판매회사	0	0.00	0	0.0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00	0	0.0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중개수수료	단순매매·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구분	해당 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트러스트백년대계50자산배분 증권투자자산신탁 [채권혼합-재간접형]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00	0.00	0.00	0.11
종류(Class) 별 현황					
A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83	0.00	0.84	0.08
C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1.23	0.00	1.24	0.08
Ce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83	0.00	0.83	0.08
CP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93	0.00	0.94	0.09
W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43	0.00	0.44	0.12
CP2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88	0.00	0.89	0.11
CP-E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68	0.00	0.68	0.09
CP2-E	전기	0.00	0.00	0.00	0.00
	당기	0.38	0.00	0.38	0.04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3)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6. 투자자산 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조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 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조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펀드명칭	트러스트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투자자산신탁[채권혼합]	
클래스	투자금액	수익률
A	99 백만원	2.14%
C	100 백만원	2.04%

※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공지사항

* 고객님의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트러스트백년대계50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기업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금융투자협회

<http://www.trustonasset.com>
<http://dis.kofia.or.kr>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이를 이용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설정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익증권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댓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 판매,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의 판매회사에서 펀드에 가입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실제 주식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 운용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위탁자가 되어 펀드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신탁업자란 펀드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자금은 신탁업자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을 받아 펀드기준가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판매회사	판매회사란 펀드의 판매, 환매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수수료 비율	해당 운용기간 중 펀드에서 지출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등의 매매수수료 총액을 펀드의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